

제 322호 · 2015년 9월 2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공컨테이너 부족으로 러 수출업자들 비상
2. 미국 해안경비대, 중국 텐진발 선박 및 화물 모니터링 실시
3. Ceva, 싱가포르발-뉴욕행 LCL 서비스 개시
4. IHS, 중국 및 동남아시아 물동량 증가 전망

물류시장동향

1. 올 상반기 FESCO 매출 전년대비 23% 증가
2. MNX, 암스테르담에 공급망 및 물류시설 개설

공지사항

1.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2. 2015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공컨테이너 부족으로 러 수출업자들 비상

- 최근 러시아에 공컨테이너가 모자라 러시아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공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유가 하락,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무역 제재, 그리고 루블화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
- 유가 하락과 루블화 약세는 러시아 경제에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라는 이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
 - 즉 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으로 러시아의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, 반대로 루블화 약세로 러시아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임
 - 컨테이너 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음
 - 러시아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물류업체 루스콘(RUSON)의 정기선사업개발부의 안드레이 나라예프스키 부장에 따르면,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질러 수출용 컨테이너가 남아돌던 업계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전례가 없었음
 - *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어 EU 및 미국산 식료품 수입이 타격을 입자, 노보르시스크(흑해 연안에 위치)의 자사 터미널에 육류 및 수산물에 대한 수의학 검역 시설을 설치해 동남아 및 남미산 식품류 수입 증가에 대비하고 있음
- 2014년 시작된 러시아의 수입 감소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, 이는 특히 향만 물동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
 - 예컨대 성 페테르스부르크 항의 경우 금년 7월까지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3%가 감소한 90만9천 TEU를 기록한 것으로 Lloyds list 뉴스는 전하고 있음
 - 러시아 최대 무역도시의 하나인 성 페테르스부르크의 수입 물동량 감소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무역 제재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, 주 원인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- 한편 러시아의 컨테이너 수출 화물은 2015년 8월까지의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수개월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
 - 2015년 8월 현재까지 러시아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약 1~2% 증가에 그치고 있으나, 최근 수개월 동안 거의 연간 성장률에 맞먹는 10~15%의 증가율을 기록했음
 - 수출 물동량의 급증세는 수입 물동량 감소에 따른 화물 운임의 동반 하락 결과, 싼 화물운임을 이용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업자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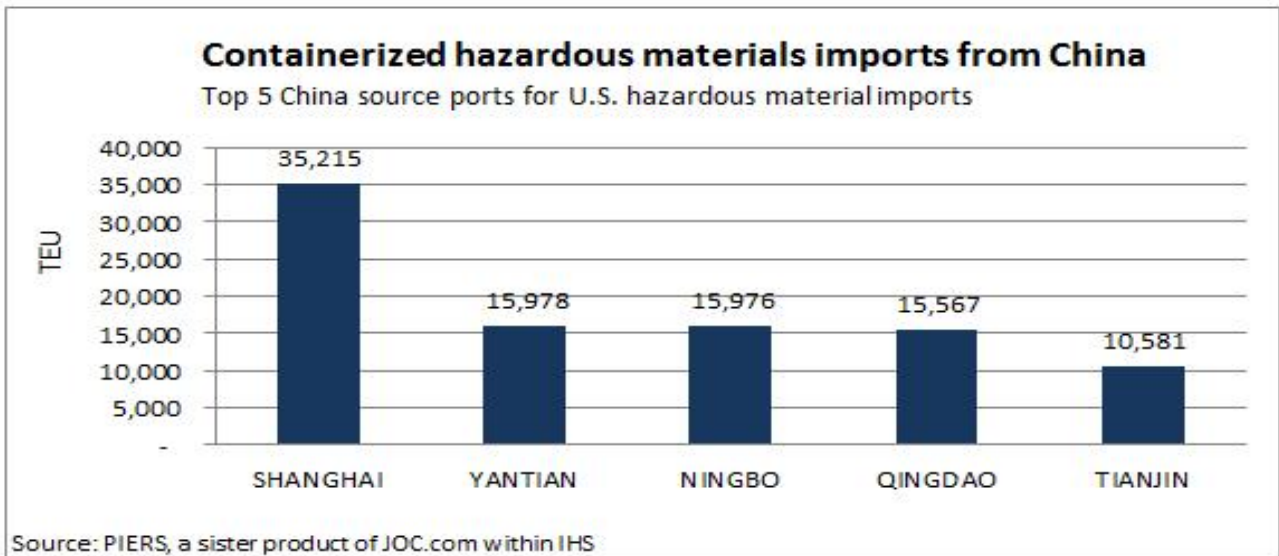
- 그 결과 최근에는 수출 화물운임이 수입 화물운임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, 이 또한 러시아 무역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음
- 러시아 수출화물 취급으로 짝퉁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정기선사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돌리기 시작했음
-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 수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러시아 수출업자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공컨테이너를 수급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

자료 : www.lloydslist.com, 2015.8.27.

박성준 전문 연구원 (☎ 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)

□ 미국 해안경비대, 중국 텐진발 선박 및 화물 모니터링 실시

- 미국 해안경비대(US Coast Guard)는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이후 텐진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임
 - 미국 해안경비대는 안전과 보건상의 이유로, 중국 텐진항에서 출항하여 미국 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함
 - 올해 7월까지 텐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량은 약 25만TEU이며, 이 중 1만TEU가 위험화물임
 - 위험화물이 들어오는 미국 내 주요 대상항만은 뉴욕-뉴저지항과 로스엔젤레스-롱비치항임



- 텐진항 폭발 관련 위험물질의 리스트는 현재 없는 상황이나, 텐진발 선박 중 폭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선박과 텐진항 폭발에 노출된 화물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
 - 텐진항 폭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위험물질에 대한 전체 리스트는 없으나, 시안화나륨과 칼슘카바이드는 텐진항 폭발사고 원인 물질 중의 하나임
 -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들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, 해치커버를 개방한 상태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
 - 또한 미국 내로 입항하는 화물 중 텐진항 폭발사고에 노출된 화물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

자료 : www.joc.com, 2015.8.27.

이건우 전문연구원 (☎ 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)

□ Ceva, 싱가포르발-뉴욕행 LCL 서비스 개시

- 최근 글로벌 물류업체 Ceva 로지스틱스가 싱가포르발-뉴욕행 주간 LCL(Less-than-Container Load; 소량혼재화물) 서비스 개시를 발표함
 - 이번 서비스 도입은 Ceva 로지스틱스의 태평양횡단 LCL서비스 개선노력의 일환임
 -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페낭발-싱가포르행 화물에 대해서도 혼재서비스가 가능해짐
- 싱가포르-뉴욕 항만 간 예상 운송 시간은 23일이며,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이동 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- 뉴욕항 도착 이후에는 미국 내 트럭 네트워크를 통해 동부해안과 미국 중서부 51개 지역으로 door-to-door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
 - 이를 통해 미국 중서부향 화물 기준 LA노선보다 5일 정도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

<Ceva, 싱가포르-뉴욕 LCL 서비스 구간>



자료 : www.supplychaindigital.com, elite-league.com

- 올 6월에는 앤트워프발-뉴욕행 LCL 서비스를 개시했으며, 이 서비스의 운송 시간은 11일로 역시 door-to-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Ceva 로지스틱스는 올해 말까지 LCL 혼재 네트워크를 확장해 40개의 글로벌 운송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임

자료 : transportinfrastructure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5.8.26.

신수용 전문연구원 (☎ 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)

□ IHS, 중국 및 동남아시아 물동량 증가 전망

-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인 IHS는 중국과 베트남의 교역량이 향후 5년간 3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
 - 동남아시아와 중국은 특히 향후 5년간 북미 및 유럽 교역의 핵심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음
 -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, 교역량은 2020년까지 연평균 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IHS의 Krispen Atkinson 해운 · 물류분야 담당자는 “두자릿수 이상의 교역량 상승률은 경제위기 이후 처음”이라고 언급함
 - 또한 “이러한 증가율은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이머징마켓을 연결하려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(Maritime Silk Road Initiative) 전략에 따른 것”이라고 덧붙임
- 이와 함께 IHS는 베트남, 인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최근 에너지 및 상품가격의 하락 추세로 인해 단기간의 교역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음
- 특히 베트남 수출물동량의 경우 하드웨어 제품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약 44%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증가 물동량은 대부분 북미 및 유럽 지역 수출물량일 것으로 분석했음
 - IH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북미 및 유럽을 제외한 수출 컨테이너는 2010년 170만 TUE에서 2014년 296만TEU, 수입 컨테이너는 2010년 260만TEU에서 2014년 400만TEU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
 - IHS의 Jan Randolph 소버린리스크¹⁾ 담당자는 “동남아시아의 이러한 성장세는 현재 이 지역에 전 세계 주요 제조공장이 입지해 있고,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비용상의 강점 외에 그리고 미국 달러 강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”이라고 분석했음
- 한편 IHS는 지난 10여년 동안 말라위, 모잠비크,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항만 · 고속도로 · 철도 등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온 중국의 경우, 이러한 투자를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아프리카 지역에 기초 물류시설이 어느정도 구축이 되면,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자원 및 원료를 수출하고,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등 아프리카와 중국 간의 양방향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물동량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5.8.26.

손보라 연구원 (☎ 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
1) Sovereign Risk : 한 국가의 채무상환 불능 혹은 부도위험으로, 부실한 민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게 되면서 결국 국가재정의 부실을 가져오고, 이로 인해 국가 채무상환 불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.

물류시장동향

□ 올 상반기 FESCO 매출 전년대비 23% 증가

-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따르면, 2015년 상반기 FESCO의 수익이 전년대비 23% 증가한 22백만 루블에 달함 (약33만7천 미달러)
 -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(EBITDA)는 44.6% 증가함
- 이러한 수익 증가율은 FESCO의 낮은 경영실적과 루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용 최적화와 루블에서 달러로의 수출입 관세 지불화폐 변경을 통해 수익성 확대에 기인함
- 2015년 상반기 해양관련 분야 매출은 전년대비 44.7% 증가한 48백만 달러임
 - 이 매출증가의 주요요인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빈도 증가 및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 운임의 상승임

자료 : www.portnews.ru 2015.8.21.

이하림 연구원 (☎ 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)

□ MNX, 암스테르담에 공급망 및 물류시설 개설

- 캘리포니아 MNX 국제물류는 암스테르담에 공급망과 물류시설을 개설함
 - 이 시설은 유럽 전역에 생명과학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운영 및 하우징 허브로 사용될 것임
 - 현재 시설 수용능력은 1,300m²로, 장차 사업 확대를 고려하여 1,700m²를 추가적으로 확장할 예정임
- 이 시설은 바이오의약품, 방사성의약품, 의료기기의 최적화된 입출고를 위해 온도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임
 - 또한, 섭씨 -20도, 2~8도, 18도로 제어되는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과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임
- 최근 바이오, 콜드체인, 의료기기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
 - 유럽, 중동, 아프리카 지역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최근 일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함
 - 배송 통제, 지속적 관리, 시간준수가 핵심인 이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

자료 : www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5.8.26.

황윤희 연구원 (☎ 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)

<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>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**중소·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** 다음과 같이 **해외진출 상시 컨설팅**과 **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**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□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·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□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·센터·창고·항만·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·투자·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·지사·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□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·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 - 현지 경제·무역·인프라·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·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 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□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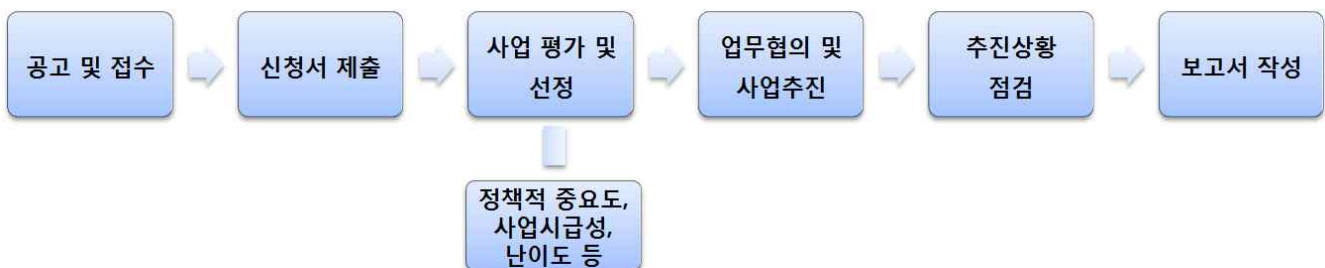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□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
 -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· 시급성 · 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·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· 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□ 사업 추진절차



2015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모집 공고

○ 목적

-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·투자사업의 발굴·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(경제·기술·재무·법률 등의 측면)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*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·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

○ 신청 대상자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
- 재무적 투자자(「은행법」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- 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- 화주(貨主)기업(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)
- * 단,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○ 지원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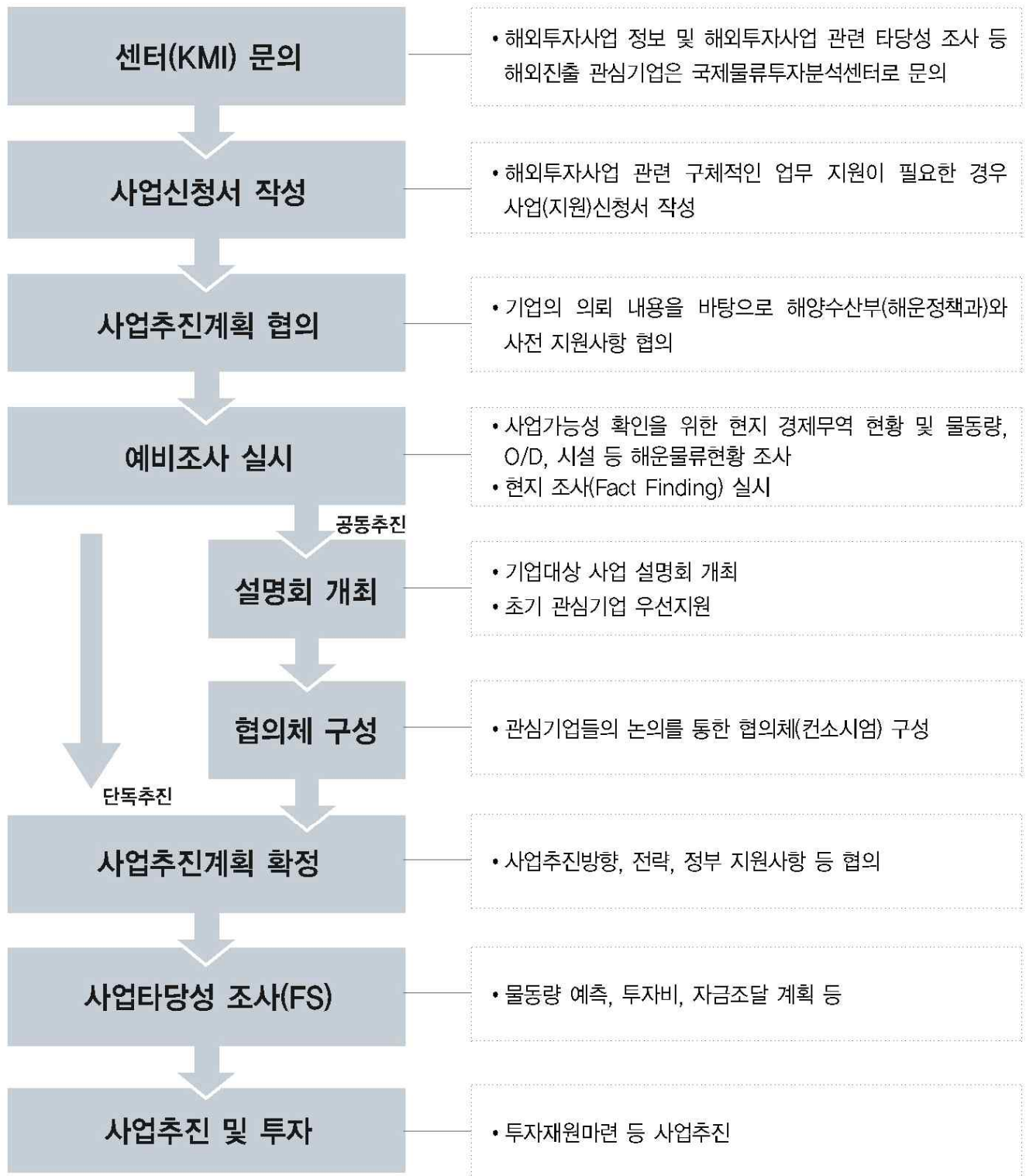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-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·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
- * 해외 현지법인 설립(단독, 합작, 합자 투자 등) 등 사업거점 확보
- *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
- * 현지 물류기업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 업체 등) 인수·합병
- * 해외 항만·터미널·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
- *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

○ 지원 내용 및 일정

-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(국고보조금+자부담 matching)
- 신청기간 : 2015. 9. 14(월) 18:00 까지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.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